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불발

(10만명)

## 종부세 납세 대상자 혼란

추경호 부총리, 국회 기재위 회의 “환급방식 고려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 불편, 국고 추가부담”

일시적 2주택자, 고령 1주택자 등 종부세 세율 낮추고, 공제 등 혜택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

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 부총리가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종부세 특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증가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특례 관련 부분은 향후 다시 논의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최영훈 기자 won@metroseoul.co.kr

# 수출, 사상 최대... 수입 급증에 무역적자 100억弗 육박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 수출액 6.6% 증가한 566.7억 달러 에너지 가격·수요 증가... 수입 ↑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 통화 긴축 등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스 등 에너지와 중간재 수요가 늘면서 수입액도 급증, 월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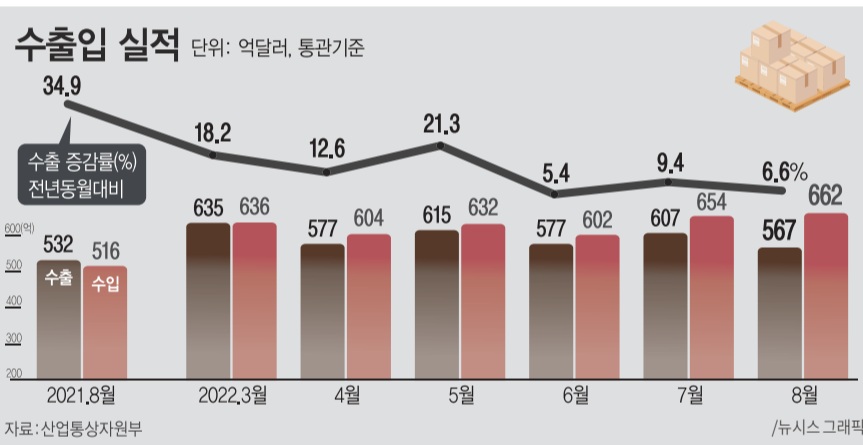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최고 실적이던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한 56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021년 3월 이후 18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8월 누계 수출액도 전년보다 560억달러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특히, 작년 8월 수출은 당시 기준 역대 8월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가 높았음에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러·우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전환해 주춤하는 모양새다.

수출 품목 중 역대 8월 실적 중 1위



를 기록한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 품목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고 실적 경신을 견인했다. 15대 주요품목 중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완성차는 차량용반도체 수급과 친환경 경차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자동차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8월 중 1위를 달성했고, 자동차부품도 완성차 생산확대 등에 힘입어 플러스를 유지했다.

석유제품 역시 고 유가에 따른 높은 수준의 단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항공유 중심 세계석유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6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유지했으나,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신규 CPU 출시 지연과 그간 축적된 재고 등 감소 시 가격 하락세가 우려된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 3.41달러에서 하락하며 4분기엔 2.5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중국과 중남미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과 미국,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계속됐다.

### ◆ 대규모 에너지 수요 증가... 수출 증가 뛰어넘어

지난달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한 건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에 더해 에너지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액은 올 3월 이후 6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중간재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액이 계속되고 있다. 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수입

액(96.6억달러)을 89억 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 산업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 등 배터리 소재·원료가 포함된 정밀화학원료 수입 등이 크게 증가했다.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12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 7월 누계 적자는 -9.4조엔(약 750억달러)에 달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우리 수출이 2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속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 긴축정책,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우리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민간소비 증가에 2분기 GDP 0.7% ↑

한은 “연간 목표 2.6% 달성 가능성” 1분기 0.6% 등 8개분기 연속 성장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1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다. 한은은 나머지 3, 4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0.1~0.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2.6%) 달성이 가능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에 이어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2.9%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는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면서 0.5% 성장했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 위주로 0.2%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7% 늘었다.

반면 수출과 수입은 화학제품·1차 금속제품,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각각 3.1%와 1.0%씩 감소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정부 소비·건설투자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0.4%포인트 하락 조정됐지만 설비투자는 오히려 1.5%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는 각각 1.3%포인트와 0.1%포인트로 분석됐다. 그만큼 소비가 2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뜻이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0%포인트 나 끌어내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美·獨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지원 확대 추세

>> 1면 ‘반도체 초강대국’서 계속

최근에는 중국이 가뭄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지 공장을 중단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TS

MC 공장이 멈출 뻔 했다. 그러나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진다.

외국 정부 지원이 더 활발해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 필요성도 높아진다. 미국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독일과 일

본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비 40%를 지원키로 하는 등 전세계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그렇다할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대안을 마

련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정부가 반도체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에너지 공급과 부지 조성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반도체 기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김재용 기자 juk@

/김재용 기자 juk@